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유소연이 전통에 따라 '포피 폰드'라 불리는 연못에 뛰어드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캐디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소연 '호수의 여왕'... 톰프슨 '눈물의 여왕'

LPGA ANA 인스퍼레이션 연장 우승...메이저로 시즌 첫 승
상금-평균 타수 1위 독주·세계랭킹 2위로 상승...제2의 전성기

유소연(27·메디힐)이 2017년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유소연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 다니아 쇼어 코스(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7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유소연은 최근 지독한 우승 가뭄을 말끔하게 해결했다.

특히 이 대회 우승자의 전통인 '포피 폰드'에 몸을 내던지며 시원한 우승 세리머니까지 했다.

유소연은 이 대회 전까지 LPGA 투어 2017시즌 상금 순위 1위였다. 8만7166달러의 상금을 벌여 상금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평균 타수에서도 67.94타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프로 선수의 실력 척도인 상금과 평균 타수 1위를 달리며 이번 시즌 LPGA 투

어 최강자의 면모를 보이던 유소연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우승컵이었다.

이번 시즌 우승 없이 상금과 평균 타수 1위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는 최근 계속 우승권을 뽐냈으나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다.

올해 이번 대회에 앞서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준우승 2회, 공동 5위, 공동 7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준우승 2회, 3위 1회 등의 성적을 냈다. 그의 LPGA 투어 마지막 우승은 2014년 8월 캐나다여자오픈이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던 에비앙 챔피언십을 공동 2위로 한 아쉬움을 올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털어낸 셈이 됐다.

물론 2015년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에서 1승씩 거두기는 했으나 2012년 LPGA 투어 신인상 출신에 유달

리 승부욕이 강하기로 소문난 유소연에게 는 성이 차지 않는 결과였을 터다.

꼭 우승이 없어서는 아니였겠지만 지난 해까지 그를 후원하던 하나금융그룹과도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스폰서와 손을 잡기도 했다.

2011년 US여자오픈, 2012년 제이미 파톨리도 클래식, 2014년 캐나다 여자오픈 등에서 우승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유소연이 올해 LPGA 투어 상금, 평균 타수 선두에 메이저 우승컵까지 품에 안으면서 한국 여자골프의 새로운 간판이 될 조짐이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도 지난주 3위에서 2위까지 오르며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1위 자리도 넘보게 됐다.

KLPGA 투어에서 9승을 거둔 뒤 2012년 미국에 진출한 유소연의 '제2의 전성기'가 올해 어디까지 뻗어 갈 것인지 골프 팬들의 관심이 커지게 됐다. /연합뉴스

“3R 17번홀 마크 뒤 공 위치 변경” 시청자 이메일 제보...4벌타 받아

렉시 톰프슨(미국)이 눈물을 흘리며 경기를 마쳤지만 끝내 기쁨의 눈물은 흘리지 못했다.

톰프슨은 3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연장 첫 번째 홀인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유소연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12번 홀(파4)이 진행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톰프슨은 3타 차 선두였다. 전날 3라운드 17번 홀(파3) 상황이 톰프슨의 발목을 잡았다. 톰프슨은 17번 홀에서 약 30cm 정도 되는 파 퍼트를 남겨뒀다. 톰프슨은 마크했다가 다시 공을 놓고 퍼트했는데, 공을 놓는 과정에서 약 2.5cm 정도 홀 쪽으로 가까운 곳에 났다는 TV 시청자의 이메일 제보가 대회 마지막 날 접수된 것이다.

결과, LPGA 투어는 벌타를 부과하기로 하고 톰프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톰프슨은 공을 마크한 지점이 아닌 홀에 가까이 놓았다는 이유로 2벌타, 스코어 카드를 잘못 작성해 제출한 이유로 2벌타

등 총 4벌타를 받아 5위로 순위가 둔감했다.

톰프슨은 처음에 “농담 아니냐”고 되물었다가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고는 눈물이 그렁 그렁해졌다.

대회장의 많은 갤러리가 톰프슨의 이름을 외치며 힘을 불어넣었지만, 메이저 대회 최후일 4벌타를 딛고 우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톰프슨은 “고의로 공을 홀에 더 가까이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경기에 임한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좋은 경기를 펼친 유소연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 안방서 분위기 쇄신하자



KIA, 오늘 SK와 홈 개막전...양현종 선발

엔트리 4명 교체...5시30분 개막전 이벤트

독한 예방주사를 맞은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승리 향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2017 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2승1패를 거두고 왔지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불펜이 출발부터 삐걱거렸고, 무개갑이 떨어지는 4·5선발에 대한 숙제도 확인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김기태 감독은 엔트리 교체 카드를 들었다. 두 경기 연속 부진했던 좌완 고효준을 빼고 ‘새 얼굴’ 사이드암 박진태를 불러들일 예정이다.

첫 시리즈부터 마운드의 약점을 노출했지만 ‘믿을 구석’은 있다.

불펜의 새 전력으로 주목받았던 박지훈이 첫 등판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핵터에 이어 팻년까지 호투를 이어가며 선발진의

확실한 카드 하나가 더해졌다.

무엇보다 목적해진 타선이 몸이 덜 풀린 마운드의 방패다.

‘최형우 효과’는 개막 첫 경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최형우의 주말 3연전 성적은 9타수 3안타(타율 0.333) 3타점. 결승타와 선취점에 최형우가 있었다. 또 개막 세 경기 만에 홈런포도 가동하는 등 최형우의 시즌은 순조

롭게 시작됐다.

여기에 ‘최형우 효과’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 나지완의 기세가 매섭다.

5번에 위치한 나지완은 지난 3연전의 ‘히어로’였다. 첫 타석에서 시즌 1호 홈런 주인공이 됐던 나지완은 첫 만루포까지 동시에 기록하면서 더 목적해진 KIA 타선의 힘을 과시했다.

나지완은 “앞에 형우 형이 있어서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다.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상대에게는 김주찬을 넘어 최형우 그리고 나지완까지 피해가야 하는 점점산조의 타선이다.

타선의 ‘부상 공백’이 예전처럼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도 올 시즌 KIA의 큰 힘이다. 시범경기에서 패조의 페이스를 보였던 안치홍이 옆구리 염좌로 개막전에 나서지

못했지만 서동욱이 듬직하게 2루를 지켰다. 31일 경기 이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이범호의 공백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김주형이 3루, 우익수에 섰던 김주찬이 1루로 들어서면서 자리를 조정했다. 외야에는 노수광이 투입돼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탄탄해진 야수진은 내부 경쟁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다.

희망과 숙제를 동시에 본 시즌 개막전은 ‘가을잔치’에 도전하는 KIA에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

김기태 감독은 연장 진땀승을 거둔 뒤 “나를 포함해 코칭 스태프 및 선수단 모두가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집중력 있는 플레이와 경기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지난 3연전. KIA는 양현종을 앞세워 개막을 기다렸던 홈팬들을 맞는다. 상대는 SK의 ‘잠수함’ 박종훈이다. 두 선발의 무게,

탄탄한 타선의 힘 그리고 첫 시리즈 성적에서도 KIA가 3연패의 SK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현종이 듬직해진 타선을 앞세워 핵터-팻단에 이어 호투 릴레이를 이어갈지 눈길이 쏠린다. 이후 KIA는 주말에는 한화를 안방으로 불러 홈 6연전을 치른다.

한편 KIA는 홈 개막전을 맞아 ‘타이거즈 비트 : 울림(Tigers beat)’이란 주제로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펼친다.

국내 정상급 걸그룹 레드벨벳과 록밴드 트랜스픽션, 비보이 그룹 ‘진조 크루’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비트 콘서트’가 준비됐다. 또 추첨을 통해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홍콩 가족(4인) 항공권과 롯데백화점이 제공한 UHD TV 55인치 TV 1대, 양문형 냉장고 1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